

목어

정의가 문제다

이재정신부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정영신씨와 함께 시대의 한 중심점으로 종교계지도자를 초청해 좋은 정치 구원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며 한마디씩의 충고를 요청했다. 각 종교계에서 온 분들이 접하게 한마디씩 한 후에 내 차례가 돌아왔다. 다음 이야기는 그때 내가 한 말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깊은 산 속 바위 밑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응이 와서 소원을 성취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 늘 바위 밑에서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렸고 그 결과 특별한 능력(?)까지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앞날에 대한 예언도 해주면서 큰돈을 받게 되자 슬그머니 건방진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의 지극한 노력과 뛰어난 머리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해 맞춘 것인데 보지도 않는 그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보답을 한단 말인가? 이제는 그냥 집에서 내 하고 싶은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산을 찾는 일이 없어졌고, 그에 따라 그의 예언능력도 점점 사라져 실재를 맞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었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인들을 불러준 것은 고맙지만 이번 한번에 그칠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늠하면 주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가져야 그 사람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정권출범 초기에 좀 심하다 싶었지만 좋은 기회도 아니고 해서 쓴 소리를 했는데, 그 후에 다른 뛰어난 종교지도자들을 모셨는지는 모르지만 내에게는 연막이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각종 개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민심이 흉흉하다. 개선행으로 민주당의 대표 등 진용을 바꾸고 정면돌파할 모양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은 사회전반에 걸쳐 권력, 재물에 관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정부, 여당 지도자의 도덕성 회복을 통한 정의구현이 급선무다. 어느 국왕의 질투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백성들의 고통만큼 다스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법현(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안으로 '안정-화해' ... 밖으로 '대북 교류'

2000 결산 - 주요 종단

조계종

총무원: 취임 1년차를 맞는 정대 총무원장 체제의 올해 최대 과제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으나, 화합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98, 99년 두 개종을 뒤쫓는 분규의 양상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으로 사면 실시를 설정하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으나, 내년의 과제로 남기고 말았다. 사면에 대해 총무원은 "정대스님은 환안공했다. 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미루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회의원들 사이에서 "종회의 등의 역할을 맡아내기 위한 집행부 전체의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농지법 등 국가법령의 개정,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구성은 큰 성과로 기록된다. 특히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6.15 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후 활동이 기대된다. 그러나 성보문화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성보도산 사건이 빈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중앙종회의 상임위원회의 활동의 활성화, <중앙종회 역대 회의록>과 <종헌의 이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해 통해 종단사를 정리했고, 7개 상임위원회는 올해 1차례 이상의 세미나를 열어 정책적 생산하는 중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종단 전체의 이익보다는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유희를 거듭하는 구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 14회 종회를 개최하지도 못한 채 유희회시

는 오점을 남겼다. 교육원: 올해를 '교육진흥의 해'로 정하고 1년 동안 교육체계와 사업을 진행한 교육원(원장 일면)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교과과정 통일, 사미의제 정착, 고사위원회 발족, 4급 승가고사 시행, 기본교육체계 확립,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선

조계종

민족공동체 본부 구성 강원교과 통일 '성과' '사면' 내년 과제로

태고종

'태고넷' 인터넷 포교 남북합동 영산제 제안 총무원장 자격 '시비'

인총람)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쳤다. 반면 상설행자교육도량 설립과 관련해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전문·특수·교육분야의 사업전개와 재교육이 미약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 분야에 대한 내년도 사업전개에 요구되고 있다. 포교원: 올해 포교원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였다. 지난 10월에는 전국직장

직능법회 연합대법회를 이끌어 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올 한해만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철도청불교협의회,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 등 동일직장 불자연합회가 창립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포교단체 제도정비 및 포교사단, 불교상담개발원, 여성개발원, 신도교육위원회 발족, 포교소재자 해외포교자료 직장직능법회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포교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군불교 포교 및 군불자들의 신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군 불교충신도회를 창립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군포교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 및 내용성에 있어 군순단과 의견 합의를 못해 과제로 남게 됐다.

태고종 △북한불교도지원 및 포교 확대 △선암사 성역화 사업 회향 △인터넷 포교 활성화를 종단 3대 지표로 한 해를 시작한 태고종(총무원장 종연)은 지난 9월 홈페이지 '태고넷'을 오픈해 인터넷 포교시대에 동참했다. 이와 더불어 태고보우스님, 동자승, 영산재 등 종단홍보 및 포교용 캐릭터 70 여점까지 개발해 신세대를 겨냥한 포교에 적극 나서는 등 종단 정체성 확립과 홍보에 그 어느 때보다 역점을 둔 한해였다.

6.15 남북정상회담당시후인 6월 23일에는 북한에 통일지원 남북합동영산재 봉행과 북한사찰의 단청불사 지원 등을 제안하며 북한과의 교류 물꼬를 트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기울였다.

지난 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선교육 후득도' 제도도 정착단계에 들었다. 23기 득도수계산리 수계자부터 종립학교 입학에 적극 권유했으며 2005년부터는 종립학교를 나와야 승적을 발급하기로 종단방침을 정했고 승려 및 교인, 종무직인, 승려권속들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11월 23일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서

사상최초로 '50대의 젊은'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이변도 낳았다. 그러나 일부에서 총무원장의 자격시비와 공약이행 여부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내용의 불신을 안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 종단의 해묵은 과제인 말사들의 분담금·의무금·납부가 여전히 저조해, 분담금·의무금 미납 사찰에 대한 종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태종(총무원장 윤덕)을 올해 종조사신

전태종

사회복지 활동 열심 구인사 대조사전 낙성 영통사 복원 논의

진각종

해외구호사업 '주목' 신세대 포교 활발 대표단 두번째 방북

양의 고양과 더불어 중지종풍을 확립하기 위한 종단의 노력과 복지사업, 국제종교포교 확대 등이 돋보인 한 해였다. 특히 지난 11월 5일 2만여 종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낙성식을 가진 '삼월원각 대조사전'은 현대의 국보급 문화재'란 찬사를 들으며 조사신앙 신앙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복지법인 인가를 시작으로 주력한 복지사업은 올해 춘천노인복지관, 구미 장애인복지관, 새싹어린이집 등을 위탁받았으며 '수족침봉

사회 발족' 등 신도들을 통한 자발적인 자비행 실천에도 역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말 총무부장을 대표로 하는 종단대표단이 종조인 대각국사의 출가 열반지인 북한 개성 영통사지를 방문, 영통사 복원문제를 논의하며 북한불교와의 교류에도 첫 발을 떼어 놓았다.

올해에도 전태종은 부산 삼광사 지장전 낙성, 수도권 포교의 중심지가 될 분당 대광사 요사채 상량식, 대전 삼문사 종합불교회관 상량식, 양평 양산사 기공식 등 20여 말사의 낙성 및 불상 집안식, 기공식을 가져 지역 포교의 기반을 다졌다.

진각종 △부처님오신날을 포교 강화에 주력한 진각종(총리원장 성초)은 포교영역 확대, 대북포교 심화, 밀교포교 대중화 등에 주력해 그 어느 해보다 성과를 드높인 한해였다.

북지분야에서 발군의 실적을 보여준 진각종은 7월에는 스리랑카에 JGO직업훈련센터를 개소, 본격적인 국제구호활동과 해외포교에 나서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청소년기구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가 7월 문광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청소년문화 창출과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신세대포교를 강화시켜 미래불교를 이끌겠다는 진각종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가장 부각되는 점은 지난해에 이어 성초총리원장 등 종단대표단의 2차 방북이다. 지난 9월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통일포럼회 개최, 북한불교 대표단의 방한 추진, 금강산 장안사 복원 참여, 컴퓨터 지원 등을 합의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 남북불교의 폭넓은 교류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을 얻었다.

이경숙·정성운·김원우 기자 (gslee@buddhapia.com)

'교류 협력 → 연합 → 통합'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공동회장 법타스님이 '남북불교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타스님은 20일 '교려불교통일 조계종 통일안을 제안한다'는 제안서를 통해 교류·협력 단계→남북불교 연합 단계→남북불교 통합 단계 등 3단계의 불교통일안을 내놓았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법타스님은 A4용지 7장 분량의 제안서에서 "10여년 동안의 북한불교 연구, 조선불교도연맹 간부들과 관계 기관과의 대화를 기초로 했다"고 밝

히고 "타종교의 막강한 도전과 파괴로부터 한국불교를 지키고 중흥시키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통문화의 발전 계승시키는 것"이라며 불교통일에 대한 연구와 활발한 논의를 기대했다. 법타스님은 내년 2월 평壤형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구체적인 통합 방안과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남북연합→연합→원전통일)과 맥락을 같이 하는 법타스님의 3단계 불교통합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타스님 '남북불교 통합론' 제안



■ 교류·협력 단계 신뢰 회복, 상부상조, 동질성을 확인하는 단계, 식량과 의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조별련을 통해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 주체사상과 불교와의 관계도 연구되어야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남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며, 조별련은 북한불교의 현황을 남측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남북불교 연합 단계 남북 정부가 연합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통일조계종단

의 전단계로서 1.종단, 2.체제, 2.종무행정기구의 형태이다. 남과 북의 불교는 독자적 종무행정을 보장하면서 남북불교 지역차이를 실시하되, 연합종회와 연합총무원을 구성한다. 연합기구에서는 △분단 이전의 북한불교 실태 조사(재정, 토지, 건축물, 파괴 원인) △대의 활동의 조정 △불공, 제사, 무당, 복식 등 의식 및 의형의 통일 △북한지역 사찰 복원 계획 수립 및 자금 축적 △북한

지역 신흥도시 사찰 창건 계획 수립 등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 남북불교 통합 단계 1.종단, 1.종무행정기구를 갖는 형태이며, 김 대통령의 통일 단계 종무행정단계(1국가, 1체제, 2차지정부)에서도 실현 가능하다. 하나의 명칭(교려불교통일조계종)과 종헌, 의결기구를 갖는다. 통합종회는 남북 동수로 100명으로 하며, 해외동포와 신도도 포함한다. 승려는 독신, 삭발, 염의해야 하며, 복속의 기혼승은 당대만 인정한다. 복속의 교구는 광발사, 상발사, 표준사를 본사로 3개 교구를 둔다. 북한 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불교 토지를 정부로부터 환수토록 노력한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 김광삼
논설위원: 고은
인쇄인: 김규석
www.buddh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신사년 새해아침
경제번영 민족평화통일 불교중흥기원
신년 해오름기도 호국 용왕도량 감포대왕암 방생대법회(제13회)
석지형 스님과 함께하는 나라와 불교위한 큰기원
새해의 첫날을부처님을 향한 정진으로 시작하면 크나큰 공덕성취의 문이 열려옵니다
신사년 새해 이따와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해 뜨는 시간에 불자님의 정성과 새해의 소원이 담긴 등을 달고 신년 기원 대법회를 전국의 여러 인연불자님이 대거 동참하시는 가운데 장엄하고 성대하게 봉행 올리며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한 날이 되기를 축원 올립니다.
10여년 전부터 해마다 전국적 규모의 연례대법회로 봉행되어 금년 제13회에 이르는 뜻깊은 법회입니다.
석지형 스님과 여러 의전스님단 수많은 불자님이 함께하는 철야 용맹정진 법회는 새해에 큰 공덕을 성취케 하리라 확신합니다.
효록의 성지에서 봉행되는 대법회에 전국인연불자님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대길상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南無 관세음보살 마하살